



Weekly Keyword

"웨어러블 로봇 시장 태동"

최근 국내 기업들의 웨어러블 로봇 이슈가 다수 나오는 중. 내년 이후 제품 공개 확대 등 웨어러블 로봇 시장 태동 전망. 관련 부품 밸류체인까지 관심 확대 유효하다는 판단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8)

[웨어러블 로봇 시장 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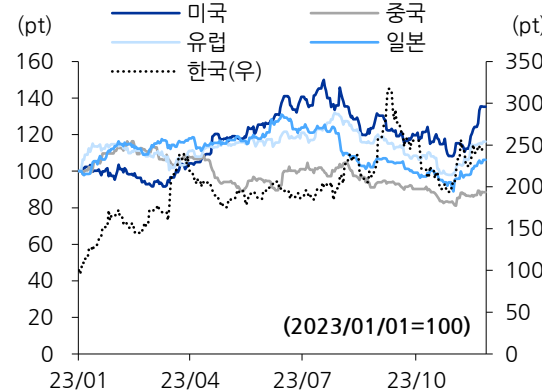
■ 최근 국내 기업들의 웨어러블 로봇 소식이 다수 나오는 중.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벤처기업(엔젤로보틱스, 위로보틱스 등)에서 웨어러블 로봇 개발 및 사업화 진행 중. CES 2024에서 국내 위로보틱스, 휴로보틱스가 웨어러블 로봇으로 혁신상을 수상했고,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의 정식 출시와 엔젤로보틱스 상장도 기대 가능. 2023년이 협동로봇과 물류로봇의 해였다면 내년에는 웨어러블 로봇까지 관심 영역이 확대될 전망. 웨어러블 로봇은 인간과 상호작용(HRI, Human-Robot Interaction)이 필요한 로봇 분야. 인간이 움직임을 파악 및 예측하여 신체에 대한 부하를 경감시키거나 반대로 더 부하를 가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 향후, 재활 및 치료, 피트니스 용도 등 다양도로 활용이 가능할 전망. 로봇 무게, 착용감, 미관 등 개선이 필요한 점들도 많지만, 퍼스널 로봇 분야 시장 개화의 주역이 될 것. 관련하여 로봇 부품 밸류체인까지도 관심 확대 유효(모터, 감속기, 힘토크센서, OEM 등)하다는 판단.

Key Chart: 주요 한국 기업 웨어러블 로봇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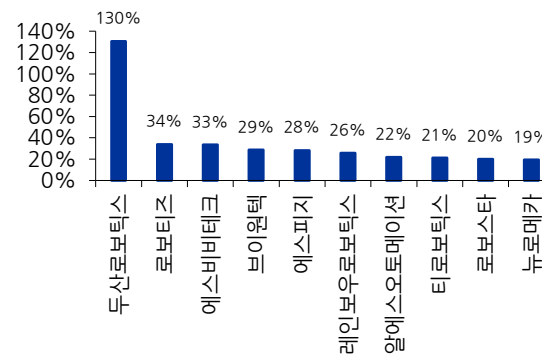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글로벌 로보틱스 Chart(국가별 시총 변화)



국내 주요 로봇 종목 1M 수익률



자료: Bloomberg

로봇 주요 뉴스(11/20~11/26)

[산업용 로봇]

- 레인보우로보틱스, 내년 초 양팔 로봇(14축) 공개
- 두산로보틱스, 이탈리아 훔베르거와 전방위 협력

[서비스 로봇]

- 서울 성북구 송곡중에 국내 최초 급식 로봇 설치
- 국토부, 도심 주유소에 로봇 운영 물류센터 실증
- 브이디컴퍼니-뉴빌리티, 로봇 사업 협력 MOU 체결
- XYZ, 올해 아리스 3.0 100대 보급, 2025년 상장 목표
- 휴로틱스, CES 2024에서 웨어러블 로봇으로 혁신상
- 코가로보틱스-포스페이스랩, 서빙로봇 판매 등 협력
- 로보티즈, 캠핑장 자율주행 로봇 도입
- 부평 로봇 부차장 12월부터 시범 운영 개시 예정

[기타(정책/부품/SW)]

- 세이프티스, 협동로봇 안전 분석 솔루션 출시
- ETRI, 로봇 자율 제품조립 인공지능 기술 개발
- 현대오트모버, 플릿 매니지먼트로 로봇 사업 진출
- 현대차, 싱가포르 HMGIS 준공, 로봇 다수 활용
- 로보티즈, 일본 RT코퍼레이션과 판매 계약 체결
- 로봇산업진흥원-KTC, 로봇 표준화 및 시험인증 협력
- 케이알엠, 국방부 장관배 드론봇 챌린지 최우수상

[Global]

- EU,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최종 승인 방침
- 브라운데, LLM 활용 로봇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
- 중국 러쉬로봇과 케플러가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